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집중

전주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20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한 전주형 복지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복지 추진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 권익 증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동물복지 및 종보전 대표기관으로 도약이다.

먼저 시는 '함께라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위기기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라면'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내 연대와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복지서비스 취약지역에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저소득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단을 통해 일자리 제공을 연중 추진한다.



전주시는 20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6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 노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등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25개 분야 206명의 재능 봉사자를 기반으로 한 '재능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2400여 명 증가한 1만6495명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장애인의 유형별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지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아동발달 지원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확대해 많은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덕진권역 거점형 대형볼리터를 착공한다. 기존 건물 공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전주시 가족센터'도 온가족 보듬 사업을 통해 다문화·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

문의 온실가스를 37.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동차 보급의 경우 올해 467억 원을 투입하여 3408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및 화재 안전시설도 지원된다.

나아가 시는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과 생태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시는 환경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무터넷 설치 지원 △가스열펌프 배설시설 저감 장치 설치 △취업성취기회합합 관리 강화 기술 지원 △민간환경감사단 운영 등이다.

앞으로 시는 전주동물원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및 종보전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동물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사육관리를 도모하고,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인해 나타나는 정형행동 최소화를 위해 개체별 행동공부화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은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전주시보건소, 대상자 상시 모집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되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599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We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지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단, 서비스의 특성상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아동과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연 1회 제공되



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9만20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k21.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상담이 종결된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 8회기의 추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주차단속 유예·공영주차장 확대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주말·공휴일 단속시간 단축 등 시민 만족도 높이는 주차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 한해 도심 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차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차단속 카메라의 운영시간을 개선하고,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 주말·공휴일 단속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10시까지 운영되던 단속카메라를 오전 7시에서 오후 7~8시로 조정해 단속시간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단축하는 한편, 단속유예시간이 5분이었던 전주역과 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도 10분~20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시간을 개선기로 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속카메라 점심시간 단속유예(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도 교통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말 교통량 감소를 감안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단, 백제대로와 팔달로, 기린대로 등 일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평일 단속시간이 적용되며,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주정차와 민원 신고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차량 등을 이용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단속카메라 단속 완화 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재 행정예고(20일)를 진행 중으로 각 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절대적인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꾸준히 펼쳐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28년 초까지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21개소 주차장에 주차면 3750면을 확보하며, 올해는 6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시민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전수조사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6년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노인일자리 효자시니어클럽 시니어 설문조사단이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자 1500여 명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서비스 만족도 △하

위 결제 및 부정수급 경향 △인권 문제 △건의 사항 등으로,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실제 의견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설문조사 진행을 수 있도록 지난 19일 효자시니어클럽 설문단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및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효자시니어클럽 설문단은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권 교육도 이수한 바 있다.

/김욱기 기자

효자4동 새마을부녀회, 새봄맞이 환경정화 펼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지희)에서는 전주대평생교육원 주변 공원 및 주택가 등 새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각종쓰레기와 잡풀 등을 제거하는 등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효자동 새마을부녀회는 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여름철 삼계탕봉사, 할바봉사, 밑반찬 나눔 봉사, 감자담그기 및 떡국떡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원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벤트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